

사우디아라비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0. 12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8
IV. 국제신인도	13
V. 종합의견	15

사우디아라비아 (Kingdom of Saudi Arabia)

I. 일반개황

면적	2,150천 km ²	GDP	3,692억 달러 (2009년)
인구	25.2백만 명 (2009년)	1인당 GDP	14,354 달러 (2009년)
정치체제	왕정 (정교일치)	통화단위	Saudi Riyal (SR)
대외정책	친서방	환율(달러당)	3.75 (2009년)

- 사우디아라비아는 2008년 기준 세계 확인매장량의 21%에 달하는 2,641억 배럴의 원유(세계 1위)와 4.1%에 해당하는 267조 입방피트의 천연가스(세계 5위)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에너지 부국임.
- 경제의 석유산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취약점이 있으나, 2003년 이후 고유가에 힘입어 경상수지, 외환보유액 등 거시경제 전반에 걸쳐 비교적 호조세를 지속해 오고 있음.
- 정교일치의 국왕 중심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사우디는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를 보유하고 있는 이슬람의 발상지로서 중동 국가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이슬람 관습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임.
- 2005년 8월, 왕위를 계승한 압둘라 국왕은 전통적인 친미관계를 지속하고 신중한 정치·경제개혁을 추진하면서 민간부분 경제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국가 인프라 확충, 서민층의 생활수준 향상 등을 위한 정책을 펴 나감으로써 경제의 탈 석유화를 도모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e	2010 ^f
경제성장률	3.2	2.0	4.2	0.6	3.4
재정수지 / GDP	21.0	12.2	32.5	-6.1	3.1
소비자물가상승률	2.3	4.1	9.9	5.1	5.4

자료: IMF 및 EIU.

□ 2009년 경제성장률 크게 둔화, 그러나 2010년 회복 전망

- 사우디는 세계 최대의 원유 부존·생산·수출국*으로서, 석유산업은 사우디 GDP의 55%, 정부 재정수입의 90%, 수출의 90%를 차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우디의 경제성장은 국제유가 등락과 원유 생산량 증감에 크게 좌우되고 있음.

* 원유매장량 : 2,641억 배럴 (세계 1위, 세계 점유율 21%), 생산량 : 5.2억 톤 (세계 1위, 13.1%), 수출량 : 3.4억 톤 (세계 1위, 17.3%)

-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고유가에 힘입어 경제 호조세가 지속되어 왔으나, 2009년에는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유가 하락과 원유생산량 감소*로 경제성장이 0.6%에 그치면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됨.

* 연도별 원유생산량 (백만 b/d) : 9.2 (2006) → 8.8 (2007) → 9.2 (2008) → 8.4 (2009) → 8.5 (2010)

- 1993년부터 2002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5%에 불과하였으나, 2003년 이후 오일붐에 힘입어 사우디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4.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그러나 2010년에는 국제유가 상승과 원유생산량 증가에 힘입어 3%대의 경제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에도 서비스 부문 성장, 정유·석유화학 플랜트와 산업단지 조성 등 사우디 정부의 대규모 투자계획*에 힘입어 4%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사우디는 향후 5년 간 3,730억 달러 규모의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음.

□ 재정수지 흑자전환 전망

- 사우디 재정수지는 2003년 이후 꾸준히 흑자기조를 유지하여 왔으며, 2008년에는 원유 증산과 국제유가 상승세에 힘입어 재정수지 흑자규모는 GDP 대비 32.5% 수준까지 대폭 확대되었음.
- 2009년에는 국제유가 하락 및 원유 생산량 감축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와 정부지출 증가로 6%대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음. 그러나 2010년에는 재정수입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석유산업의 회복에 힘입어 재정수지는 GDP 대비 3%대의 흑자전환이 전망됨.

□ 소비자물가 상승세

- 소비자물가는 정부의 광범위한 보조금 지급을 통한 생필품 가격 조정, 외국인 근로자 대거 유입을 통한 임금 인하 등에 힘입어 2~4%대의 낮은 수준을 유지해왔음.
- 2008년에는 미 달러 페그제에 따른 리알화 저평가와 수입물가 상승, 부동산 임대료 급등, 임금인상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는 9.9%까지 크게 상승하였음.
- 그러나 2009년에는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식료품 가격 하락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향후에도 5~6% 수준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 구조·정책

[구조적 취약성]

□ 석유 의존적 경제구조

- 사우디 정부의 산업다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석유산업이 총 GDP의 55%, 재정수입의 90%, 수출의 9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국가 경제구조가 편중되어 있어, 사우디는 유가 등락과 원유생산량 증감에 경기가 급격히 변동되는 석유 의존적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

[성장 잠재력]

□ 중동의 정치·경제 중심국

- 사우디아라비아는 2008년 기준 세계 확인매장량의 21%에 달하는 2,641억 배럴의 원유(세계 1위)와 4.1%에 해당하는 267조 입방피트의 천연가스(세계 4위)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에너지 부국이며, 한반도의 10배가 넘는 국토와 2천5백만 명에 달하는 인구를 보유한 중동의 정치·경제 중심국가임.
- 사우디 원유는 대부분 동부지역에 매장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유전으로는 세계 최대 유전인 가와르 (Ghwar, 700억 배럴) 유전과 세계 최대 해상유전인 사파니야 (Safaniyah, 190억 배럴) 유전을 비롯하여 압카이크 (Abqaiq) 유전, 베리 (Berri) 유전 등이 있음.
- 또한 사우디는 원유, 천연가스 이외에도 금, 구리, 인광석, 보크사이트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에너지 산업에 경제 동력이 편중된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세계 최대의 에너지 보유 자원 자체가 사우디의 큰 성장 잠재력이 되고 있음.

[정책성과]

□ 비석유·민간부문 경제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구조의 탈석유화 도모

- 사우디 정부는 오일붐으로 유입된 막대한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경제 구조 다원화 정책을 펼치고 있음.
- 이러한 정책은 크게 5대 경제신도시 개발, 석유화학산업 육성, 국영광업공사 (MAADEN) 중심의 광업개발, 기타 제조업 및 관광산업* 등 민간부문 육성을 통한 실업문제 해결 및 교육 프로그램 개혁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 이슬람 성지순례 (하지) 기간 동안에만 메카(Mecca)를 방문하는 무슬림 수가 매년 3백만 명에 달하고, 이 기간 동안 관광수입은 GDP의 1.8%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향후 성지순례를 위해 사우디를 방문하는 무슬림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우디 정부는 순례객을 위한 호텔, 교통 (철도, 공항, 도로 등) 등의 인프라 확충사업을 진행 중임.

□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 압둘라 국왕은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제조업 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으로써 석유산업 위주의 산업을 다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주요 성과로는 총 270억 달러 규모의 킹 압둘라 경제도시 (King Abdullah Economic City; KAEC) 개발을 들 수 있으며, 중북부 지방의 물류 중심 경제도시 (Prince Abdul Aziz Ibn Musaed Economic City; PABMEC) 개발 프로젝트 (총 80억 달러), 에너지 및 노동력 기반산업 중심의 지잔경제도시 (Jizan Economic City; JEC) 개발 프로젝트 (총 300억 달러), IT·지식기반 도시인 메디나 경제도시 (Medinah Knowledge Economic City; MKEC) 건설 프로젝트 (총 70억 달러) 등이 현재 진행 중에 있음.

- 또한 2003년부터 시작된 고유가 행진에 힘입어 정유·석유화학, 전력 등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가 크게 확대되었음.
- 이에 따라 2004년 19억 달러에 불과했던 외국인 투자 규모가 2008년에는 사상 최대치인 382억 달러까지 확대*되었음.
- * 연도별 외국인 직접투자 (억 달러) : 19 (2004) → 121 (2005) → 183 (2006) → 228 (2007) → 382 (2008) → 355 (2009)

□ 민영화 정책 적극 추진

- 압둘라 국왕은 경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적극 추진 중에 있음.
- 주요 성과로는 ① 2002년 사우디전력공사(SEC)의 민영화, ② 2002년 사우디텔레콤(STC)의 증권시장 상장, ③ 2006년 사우디 국영광업공사(MAADEN) 지분 매각, ④ 2010년 사우디항공 (Saudi Arabian Airlines) 민영화를 들 수 있음.
- 또한 현재 사우디 국영석유회사(ARAMCO)와 담수청(SWCC) 등의 민영화 작업도 추진 중에 있음.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e	2010 ^f
경 상 수 지	99,066	93,379	132,322	22,767	56,200
경 상 수 지 / G D P	27.8	24.3	27.9	6.2	12.5
상 품 수 지	147,391	150,716	212,027	105,206	139,758
수 출	211,305	233,311	313,481	192,307	235,853
수 입	63,914	82,595	101,454	87,101	96,095
외 환 보 유 액	226,277	305,709	442,664	410,109	448,293
총 외 채 잔 액	49,540	70,521	79,163	72,768	81,551
총 외 채 잔액 / G D P	13.9	18.4	16.7	19.7	18.1
D S R	1.9	2.1	1.8	2.7	2.5

자료: IMF 및 EIU.

□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지속

- 상품수지는 고유가에 기인한 원유수출 확대에 힘입어 2003년 594억 달러 수준에서 2008년 2,120억 달러까지 대폭 확대되었음. 2009년에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상품수지가 전년대비 절반 수준으로 크게 축소되었으나, 2010년에는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경상수지의 경우 서비스수지와 경상이전수지에서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대규모 상품수지 흑자에 힘입어 흑자기조가 유지되고 있음. 2009년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GDP 대비 6.2% 수준으로 축소되었으나, 2010년에는 10%대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상품수지 : 2,120억 달러('08) → 1,052억 달러('09) → 1,398억 달러('10)
 - 서비스수지 : -659억 달러('08) → -639억 달러('09) → -647억 달러('10)
 - 소득수지 : 92억 달러('08) → 86억 달러('09) → 86억 달러('10)
 - 경상이전수지 : -230억 달러('08) → -272억 달러('09) → -274억 달러('10)

[외채상환능력]

□ 외환보유액 증가, 낮은 DSR 등 외채상황은 양호

- 외환보유액은 고유가로 인한 오일머니 유입과 2005년부터 본격화된 대규모 FDI 유치에 힘입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9년말 외환보유액은 4,101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외채 규모는 외자도입을 동반한 대규모 공공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실행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2009년 기준 GDP 대비 20% 수준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며, DSR도 2%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외채상환 부담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 및 국제관계

[정치 안정]

□ 압둘라 국왕의 안정적 국정 운영 및 점진적 개혁 프로그램 추진

- 사우디는 이슬람교 경전인 코란에 바탕을 둔 회교율법인 샤리아 (Shariah)를 국법으로 한 정교일치의 절대군주국으로, 국왕은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행사하며, 종교 수장의 역할을 겸하고 있음.
- 사우디는 알 사우드 가(Al Saud family)에 의해 통치*되고 있으며, 1932년 사우디의 압둘 아지즈 (Abdel-Aziz bin Abdel-Rahman al-Saud) 초대 국왕 이후 압둘 아지즈의 아들이 현재까지 왕위를 계승하고 있음.
- * 현 압둘라 국왕이 총리를 겸임하고 있고, 술탄 (Sultan bin Abdel-Aziz al-Saud) 왕세제가 제1부총리 및 국방부 장관직을 겸직하고 있으며, 내무부 장관, 각 주지사 (13개 주), 군부 및 경찰을 포함한 주요 요직을 알 사우드 가 왕자들이 장악하고 있음.
- 현 압둘라 (Abdullah bin Abdel-Aziz al-Saud) 국왕은 파흐드 (Fahd bin Abdel-Aziz al-Saud) 국왕 서거 후 2005년 8월 제6대 국왕으로 즉위하였음.
- 사우디에는 의회나 정당은 없으며, 국왕이 임명한 150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있음.
- 압둘라 국왕은 막대한 오일머니를 활용하여 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고질적인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경제 육성, 경제 인프라 건설, 교육체계 개편 등 점진적인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 국왕승계절차에 대한 개혁 추진

- 압둘라 국왕은 2006년 10월, 국왕 및 왕세제 유고시 왕실위원회 (Allegiance Institution)에서 국왕을 선출하도록 하는 국왕승계법안을 제정하였음. 이는 사우디 지배가 내외 갈등을 완화하고, 공정한 왕권 승계를 통해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임.

[국제관계]

□ 중동국가 중 유일한 G20 회원국

- 사우디는 중동국가 중 유일한 G20 회원국으로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원유수출국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회원국 지위를 활용할 것으로 보임.

□ 긴밀한 대미 관계 유지

- 미국은 사우디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임. 미국은 사우디로부터 안정적인 원유공급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사우디는 이란 등 외부 위협세력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양국의 긴밀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음.

- 9.11 테러에 사우디 국민이 대거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양국 관계가 악화되는 조짐이 있었으나, 이후 이라크 전쟁 수행 과정에서 사우디가 미국정부의 요구에 전적으로 협력하고, 사우디 정부 또한 왕정전복을 노리는 2003년의 리야드 테러사건 이후 극단 이슬람 저항 세력 척결을 위해 미국과 협조하면서, 양국 간 외교 관계는 긴밀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음.

* 단, 국민 대다수가 두터운 반미감정을 가지고 있어, 사우디 왕정은 이러한 국민 대다수의 반미감정 부응 필요성과 왕정 존속을 위한 현실적인 대미관계 유지 필요성 사이에서 이중적인 이해관계에 얽혀 있음.

□ 이란과의 갈등 지속

- 이란과 수니-시아파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2005년 강경보수파인 마무드 아흐마디네자드 (Mahmoud Ahmadinejad) 대통령 취임 이후 이란의 핵 프로그램 추진이 활발해지면서 이란과의 관계는 크게 악화되었음.
- 이슬람 지역의 맹주자리를 놓고 수니파가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우디는 이란을 중심으로 한 시아파 세력이 중동에서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음.
- 이란의 1979년 회교혁명 이후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하였고, 개혁파 성향의 카타미 (Mohammed Khatami) 대통령 집권 시기에는 양국 간 관계가 호전되기도 하였음.

□ GCC 국가와 원만한 관계 유지

- 사우디는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걸프협력회의)* 회원국으로서 GCC 협력체제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GCC)는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UAE 6개국으로 구성된 경제협력체이며, 세계원유 매장량의 40%,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23%를 차지하고 있음.

- GCC는 2003년부터 공동관세제도*를 시행중이며, 2009년 12월 연례 정상회의에서 연합군 창설에 합의하고 단일통화 출범을 위한 통화 협정을 발효(단, UAE와 오만을 제외한 4개 회원국이 맺은 통화협정 발효)시킴.

* 관세동맹 시행으로 역내 교역상품에 대한 관세를 폐지하였고, 역외 교역물품에 대해서는 5%의 공통관세를 부과함.

- 단일통화 출범을 위해 2010년 3월 합동통화위원회(Joint Monetary Council)*가 설치되고 사우디 중앙은행 총재가 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됨.

* 단일통화가 출범할 경우 지역 중앙은행의 역할 담당

- 그러나 단일통화 출범까지는 회원국 간의 다양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최근 유로존 재정위기로 단일통화에 대한 경계심리가 크게 작용하면서 단일통화 출범이 단기간 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2. 사회 및 소요사태

□ 강력한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

- 사우디는 강력한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로, 중동의 선진 GCC 6개국 중에서도 가장 이슬람적이고, 금욕적이며, 보수적인 사회 문화를 가지고 있음.
- 음주, 음악, 극장, 공공집회 등이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여성의 운전, 남편 또는 보호자와 동반하지 않은 단독 외출 또한 엄격히 금지되고 있음.
- 특히 교육 분야에서의 종교적 편중은 매우 심각한 상태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교과 과정의 60% 이상이 이슬람 종교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우디 박사학위 소지자의 60% 이상이 이슬람 종교학 박사임.
- 9.11 테러 주범 중 사우디 국민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자, 미국 및 사우디 정부는 지나친 종교교육이 이슬람 근본주의자를 양성하고 테러문제를 야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교육시스템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있었으나, 보수 왕족과 종교지도자들의 반대로 별 진전이 없는 상태임.

* 19명 중 15명이 사우디 국민인 것으로 판명됨.

□ 부의 왕족일가 편중에 대한 불만 증가

- 철저한 이슬람 교육을 받고 자란 청년층을 중심으로 왕족의 부와 권력 독점 및 친 서방정책을 비판하는 정서가 확산되고 있음.
- 단, 이러한 불만이 정부 전복을 노리는 테러 단체에 대한 지지로까지 표출될 정도는 아니나, 사우디 정부는 '경제성장과 실업문제 해결'이라는 경제개발 계획 수립을 통해 이러한 불만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높은 실업률

- 총 인구의 50%가 21세 미만의 젊은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아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공식적인 실업률은 12%수준이나, 실질실업률은 15~2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사우디 정부는 2005년 자국민 의무고용비율을 75%로 확대하는 등 산업인력 자국화 (Saudization) 정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나, 사우디 인구가 연평균 2.5% 이상의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사우디 민간기업들이 임금수준이 낮으면서도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력에 대한 선호**로 인해 현 실업률 문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 사우디는 1970년대 경제개발 초기단계부터 숙련인력 부족으로 외국인력에 크게 의존해 왔으나, 외국인력을 사우디 인력으로 대체하기 위해 기업의 사우디인 고용 의무제를 도입하여 시행함. 청년층의 실업 증가추세에 따라 사우디인 의무고용 비율은 점점 증가하여 왔으며, 사우디 정부는 2005년 9월 노동법 개정을 통해 사우디 의무고용 비율을 75%로 확대함.

** 사우디의 교육은 아직까지 이슬람 종교 교육에 편중(교과과정의 60% 이상이 이슬람 종교교육이 차지)되어 있어 실제로 사회에 투입될 수 있는 전문 인력은 매우 부족한 형편임.

□ 소수 시아파 차별 문제 상존

- 국민의 약 10% 정도로 추산되는 시아파는 사우디 동부의 주요 유전지대에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음. 이들은 병역의무가 없고, 정치 외교 분야 공직 참여, 여행, 거주 등에 제한을 받는 등 정부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으며, 이들 시아파 국민 중 일부가 사우디 왕정 전복을 노리는 Al-Qaeda 등과 연계되어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음.
- 사우디 정부는 시아파 국민에 대한 불신과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하여 왔으며, 특히 1979년 이란 회교혁명 후 시아파 밀집지역에서 다수의 폭동이 발생하면서 이러한 불신과 우려가 증폭되었음.

IV. 국제신인도

1.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 OECD : 2등급 (2009. 4) → 2등급 (2010. 4) 유지
 - S&P : A+ (2006. 4) → AA- (2007. 7) 상향조정
 - Moody's : A1 (2007. 7) → Aa3 (2010. 2) 상향조정
 - Fitch : AA- (2008. 7) → AA- (2010. 1) 유지
- Moody's는 2010년 2월 사우디의 신용등급을 기존 A1에서 Aa3로 한 단계 상향조정하였으며, 그 배경은 아래와 같음.
- ① 사우디가 2009년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2010년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등 여전히 양호한 재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 ②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음.
 - ③ 2009년 기준 외환보유액이 GDP 보다 큰 4,100억 달러로 정부 부채를 훨씬 초과하는 수준임.
 - ④ 사우디는 세계 1위의 원유부존국가임.

2.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EXIM : 전액 인수 가능
- 영국 ECGD : 전액 인수 가능
- 독일 Hermes : 단기 전액 인수 가능

3. 외채상환태도

□ 외채 리스케줄링 사례 없음

- 사우디는 정부부채를 크게 초과하는 4,100억 달러 수준의 외환보유액을 보유하고 있어 외채상환능력이 충분하고 지금까지 리스케줄링 경험이 없음.

4. 우리나라와의 관계

<표 3> 한·사우디아라비아 교역규모

단위: 백만 달러

	2007	2008	2009	주요 품목
수 출	4,026	5,253	3,857	자동차, 전기전자, 철강, 석유류
수 입	21,164	33,781	19,737	원유, 석유화학제품
합 계	25,190	39,034	23,594	-

* 자료: KOTIS, 한국무역통계

□ 국교수립 : 1962년 10월 16일(북한과는 미수교)

□ 주요협정 : 문화협력협정 ('75), 경제·기술협력협정 ('75), 항공협정 ('84), 항공운수·소득면제협정 ('90), 투자협력협정 ('02), 조세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협약 ('07)

□ 우리나라와의 2009년 교역규모는 약 236억 달러에 달함.

-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전기전자, 철강을 중심으로 약 39억 달러, 수입은 원유 및 석유화학제품을 중심으로 약 197억 달러를 기록함.

- 사우디는 우리나라의 최대 원유공급국으로, 우리나라 전체 원유 수입량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사우디는 우리나라의 전체 해외 건설·플랜트 수주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음.
 - 누계기준 우리나라의 사우디로부터의 수주총액은 795억 달러로 사우디는 우리나라의 전체 해외 수주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음.
 - * 우리나라의 세계 수주 누계금액 4,010억 달러 중 21%를 차지
 - 또한 2010년 9월말 기준 사우디로부터의 수주액이 100억 달러를 상회하여 우리나라의 사우디 진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수주실적을 기록하고 있음.
- 해외직접투자(2010년 9월말 누계, 총투자 기준): 135건, 147 백만 달러

V. 종합의견

- 세계 1위의 원유매장량을 보유한 에너지 부국 사우디아라비아는 2003년 이후 지속된 국제유가의 기록적인 강세에 힘입어 재정수지, 경상수지, 외환보유액 등 거시경제 전반에 걸쳐 호조세를 이어왔음.
- 2009년 유가하락과 원유생산량 감소 등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2010년에는 유가상승 등에 힘입어 경제회복과 재정수지 흑자전환이 전망됨.
- 2005년 왕위를 계승한 압둘라 국왕이 전통적인 친미관계를 지속하고 점진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하면서 경제성장 및 실업문제 해소를 목표로 산업다각화, 민간부문 경제 육성, 대규모 경제 인프라 건설 추진 등 경기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그러나 국민 전반적으로 퍼져있는 반미감정과 정부의 친미 정책 간의 괴리, 높은 실업률과 왕족 일가로의 극심한 부의 편중 등을 비판하는 청년계층의 확대, 소외받는 소수 시아파 국민의 민심이반 등은 사회 안정을 위해 사우디 정부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음.